

麗江文化

4

—여주한시편—



麗州文化院





고 목

조성기

송피의 근골사이로
가는 정맥이 흐른다

무명의 손때끝에
한시대가 젖어있는
천고를 삭혀온 갈증
징소리는 들리고

낙화 스쳐가던
술잔을 비워나가고
옹골진 가슴속에
고여드는 돌의 울음
바람도 그를 흔드는
뺨마디로 사위고

여기 영원과 회귀로
통하는 길목에서
산새 전언하는
설움마저 껴안고
한번쯤 눈을 감으면
하늘이 열린다

제10회 세종대왕송모제 전기념
전국시조시백일장 장원작품
사단법인 여주문화원주관

황령고을은 예로부터 문향의 고장이라하지 않았던가

오랜 인류문화사를 통하여 강은 풍요로운 삶과 문화의 발상지였습니다. 예로부터 여주는 여강과 더불어 유서깊은 문화의 고장으로 옛 정취가 풍요로웠던 곳이었습니다.

가치관의 확립과 전통문화계승 발전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이때 여주의 한시편인 여강문화가 발간케 된것을 저욱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의 발달과정의 기층인 옛 선연들의 삶속에 알찬 구비문학이 아로새겨져 있음으로 여강과 더불어 아마도 여주는 더더욱 다른 지역보다도 옛풍정이 그윽해 보인 요체였나봅니다.

외세의 억눌림을 당하면서도 한시를 읊조리며 끈끈하게 연이어온 우리민족의 예지는 드높은 정기였습니다.

필봉을 휘둘러 몽고군을 척명한 백운거사 이규보선생은 여주사람으로써 오늘날 팔만대장경에 기고문을 남겼고 고향처럼 여주를 넘나든 조선왕조의 옛 충신 목은 이색은 여강언저리에 절창을 남겨놓았습니다.

또한 권근, 서거정, 신광수 옛 시인들의 명시가 마치 아른대며 피어오



여주문화원장
안 금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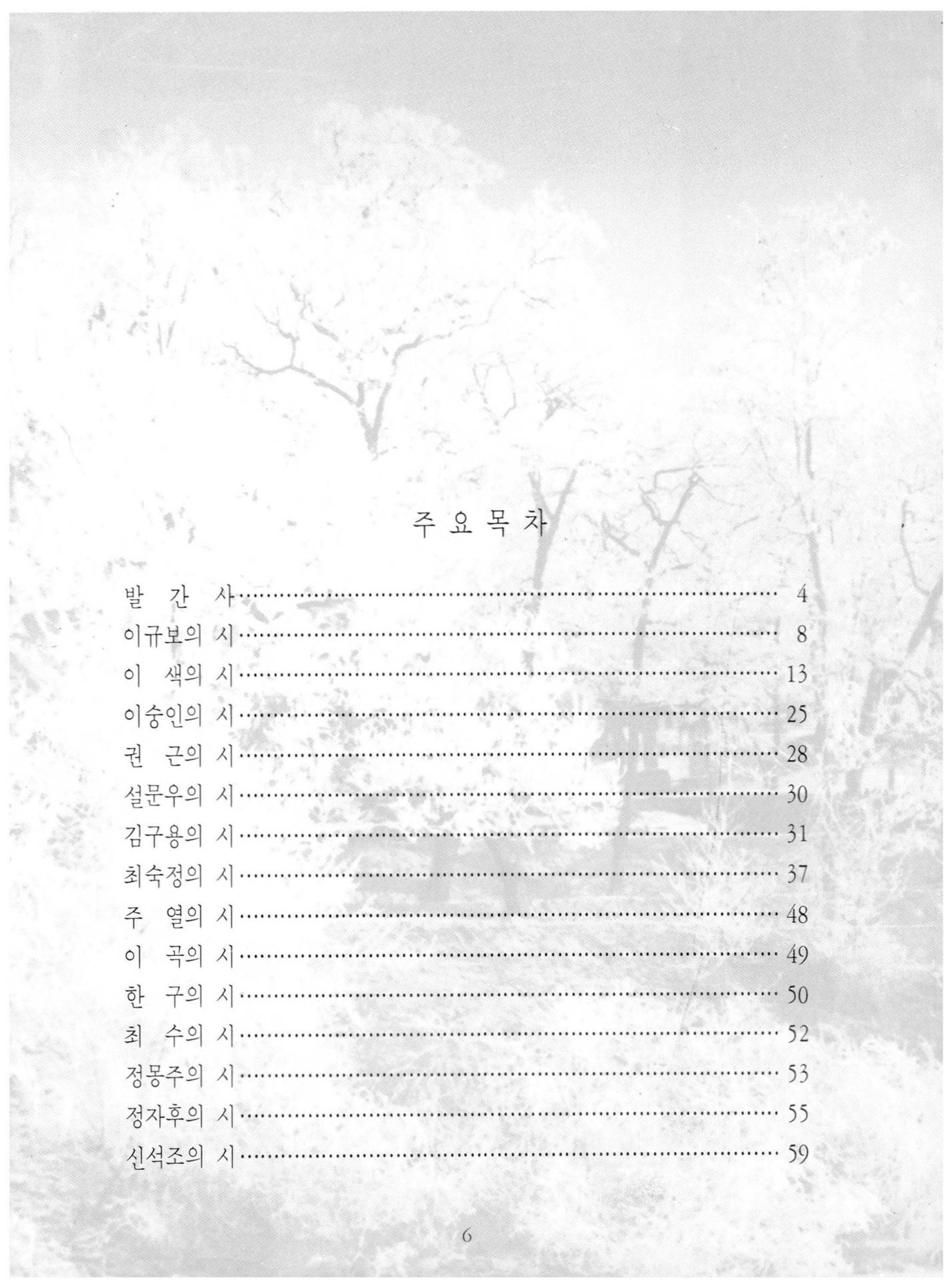
르는 봄아지랭이처럼 여주의 갈피마다에는 꽃이슬처럼 맺혀 영롱함을 더해주고 이렇듯 억천년을 아득히 굽이쳐온 여강을 따라 운치와 옛 풍정이 빛바랜 황포돛배에 강안을 따라 가득히 실려올듯 깊은 감흥을 일게하는 여강변 하마 많은 한시를 남긴 옛시인들의 발길이 아직도 서성거리는냥하고 도포자락을 휘저으며 길이 남길 명시를 읊조리는듯한 황령고을을 예로부터 문향의 고장이라하지 않았던가.

여강문화 한시편을 자료집으로 펴내면서 미급한 점은 질책해 주시면 보강재판토록 하겠습니다.

아뭇든 이만큼이라도 여주를 중심한 옛시인들의 한시를 발간토록 노력해주신 청연 김성환 옹의 노고에 아낌없는 치하를 드리고 수록된 필적이 청연 김성환 옹의 자필임을 부언해 두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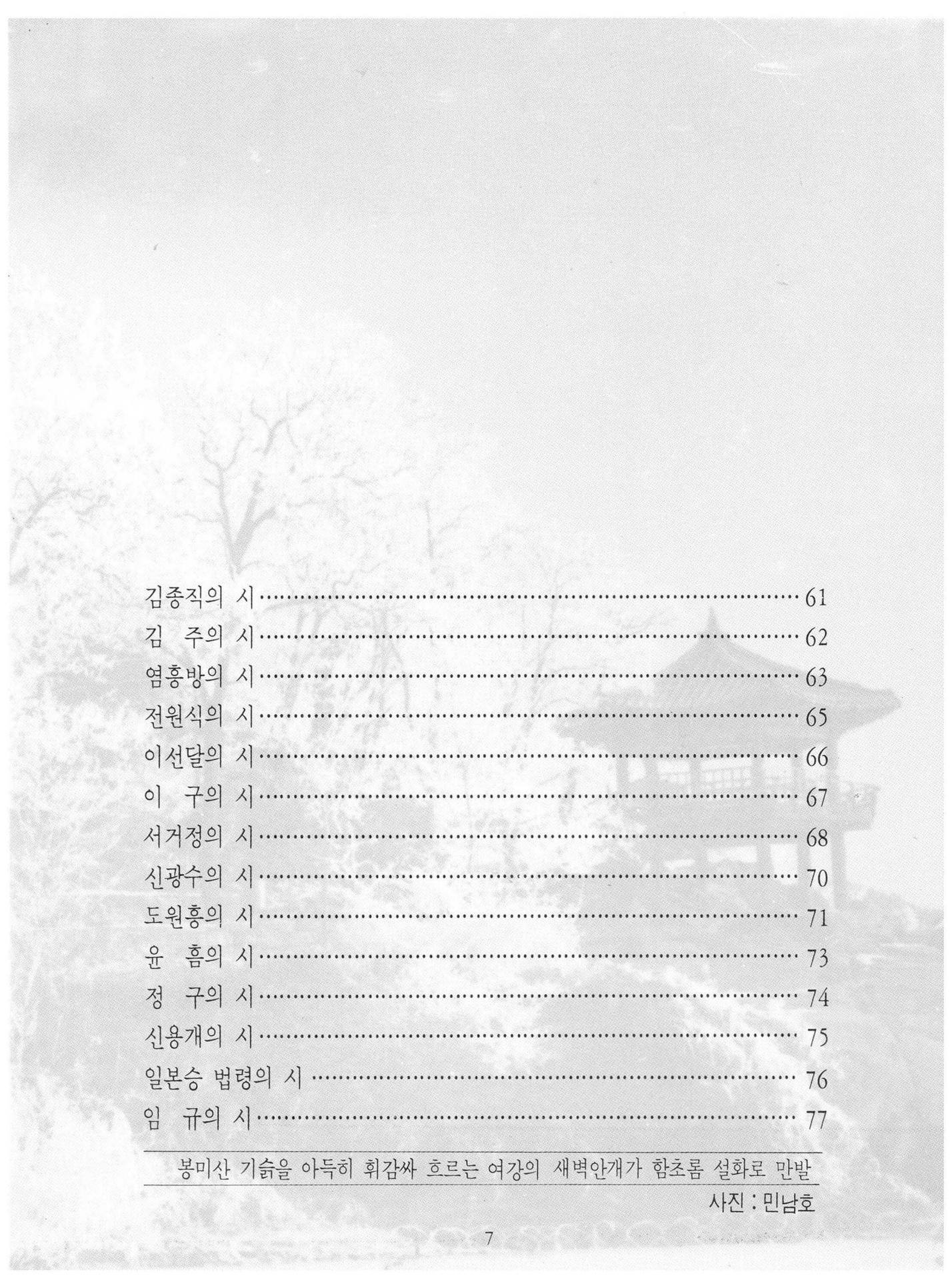
이 자료집이 여강언저리에 메아리진 옛시인들의 심오한 얼을 후세인들이 되새기며 더욱 한시문학을 발전시켜나가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앞세우며 발간사에 대신코저합니다. 고맙습니다.

1988년 12월 일



주요 목차

발간사	4
이규보의 시	8
이색의 시	13
이승인의 시	25
권근의 시	28
설문우의 시	30
김구용의 시	31
최숙정의 시	37
주열의 시	48
이곡의 시	49
한구의 시	50
최수의 시	52
정몽주의 시	53
정자후의 시	55
신석조의 시	59



김종직의 시	61
김 주의 시	62
염홍방의 시	63
전원식의 시	65
이선달의 시	66
이 구의 시	67
서거정의 시	68
신광수의 시	70
도원홍의 시	71
윤 흙의 시	73
정 구의 시	74
신용개의 시	75
일본승 법령의 시	76
임 규의 시	77

봉미산 기슭을 아득히 휘감싸 흐르는 여강의 새벽안개가 함초롬 설화로 만발

사진 : 민남호

吾師於物取之廉
獨向溪山不忌貪

(우승사 題 辨格 卷四)

幻出一樓高突山

驅來萬景總包含

(이우정 題 辨格 卷四)

耕犁細雨村情樂

樵笛殘陽野興酣

(이우정 題 辨格 卷四)

朝暮鳥聲門外樹

古今人影路傍潭

(이우정 題 辨格 卷四)

點雲歸鴈共先後

出水浮鷗忽兩三

(이우정 題 辨格 卷四)

詩人自是詩中客

洗心投社如同隱
汲水煎茶尚可堪

(洗心은 知수 可는 隱에 對하거 汲水은 수 處에 對하거)

儻有話頭鑽味處

不妨時喚老龐參

(不妨에 對하거는 呼두가 有하거든)

때론 呼는 呼두가 呼두가 有하거든

註

廉	相	忌	貪	幻
突	驅	惚	總	
犁	樵	笛	酣	
傍	潭	貼	壞	
浮	鷗	忽	窺	
蕪	都	涵	窺	
蒼	蒼	軒	窺	
榭	翠	霞	般	
曉	翠	藍	適	
慙	投	社	隱	
煎	龐	妨	鑽	

<半似丹青半似詩>

李 穡

天地無涯 生有涯
浩然歸志 欲何之

(지는 초역의 의생은 초역의가
호연히 돌아갈 뜻은 어찌로 가지는가)

灑江一曲 山如畫
半似丹青 半似詩

(여강 한 곡에 산이 그림 같이
반은丹青 같고 반은 시 같이)

註 涯 ^{물가} _{가, 끝} 浩 ^{넓을} _{넓을} 然 ^{그림} _{그림} 歸 ^{돌아갈} _{돌아갈} 志 ^뜻 _뜻 灑 ^{나키} _{나키} 曲 ^{굽은} _{굽은} 畫 ^{그림} _{그림} 丹 ^{붉은} _{붉은} 青 ^{파란} _{파란} 似 ^{같다} _{같다} 半 ^반 _반 詩 ^시 _시

丹青(丹青) ^{적(赤)과 청(靑)의 합성어} 적(赤)과 청(靑)의 합성어. 丹青(丹碧). 彩色(彩色)
[晉書] 尤善一一、圖寫特妙.

浩然(浩然) ① 호연호연 호연. ② 파도처럼 높고 뜻이 큰 호연.

浩然氣(浩然氣) ① 의(義) 넓고 커서 온 세상의 허물과서 없애는 원기(元氣). ② 공명정대(公明正大)하여 어떤 수고를 따르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적(道德的) 용기(勇氣). ③ 사물의 허물과서 자유로운 마음. ④ 도의(道義)의 근거를 두지 않지 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굳센 의기(義氣) (孟子) 我善養吾一一. ⑤ 유쾌한 마음.

灑江(여강)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마북사면을 관통하는 한강을 여강이라 일컫음.

灑江形勝天下稀
四時風景救天機

(여강에 형승은 천하에 드문대)

사계절의 풍경이 천하에 미필을 헤쳐보이는대

我初來游適夏月
長風吹舟涼滿衣

(내가 처음 와서 놀 때는 마침 여름철이니)

따뜻한 물이 흐르는 바람이 배에 불어 옷에 서늘하게

郡樓百尺縱雙目
野平山遠收煙霏

(백척 높이는 군루에서 두눈으로 멀리 바라보니)

넓은 평평하고 산은 멀어 부슬부슬한 것이 어찌 관하여

臨流高興知者少
俞允自負誠難譏

(흐르는 강에 임하니 흥취를 아는 자 적으니)

유允의 자부한 흥취 진실로 풍취가 어렵지

春花滿山波底紅
秋月沉璧天無風

(봄꽃이 산에 만발하니 물결 밑에 붉고)

가을 달은 구슬을 감고 하늘엔 바람도 없으니

我皆不及好時節
況此冰雪成嚴冬

(내공 좋은 시절에 모두 내외 못하옵는

하루며 이같은 설음은 눈은 얼음은 얼음이야

与蒙賜環自踴躍
直似野鷗辭樊籠

(내공은 임금의 부름을 받다 스스로 가문 탈피

비로와 화이 감히 견지장을 떠날 듯 하구나

雙清震器杖鉞臨

星山陽村俄會同

(쌍청의 관자제 관할처로 오고

성산과 양촌도 뜻밖에 한 자리에 모였네)

太守誠心樂嘉賓

獻酬成禮和氣融

(대수 성심으로 이음다운 손을 즐겁게 해

친하고 수작하며 예를 다하여 화기차 무르익었네)

長冰自消雪又來

明月欲出雲還開

(영이 스스로 녹고 눈이 또 오고

밝은 달이 나오려하자 구름 또한 열리게)

病後驪江幾往還
欲覓高韻泚君顏

(병후에 아오을 몇번 왕복하였는가)

盡은 시를 허잡잡하여 허대세 얼조이 부끄럽네

流遵最好半篙水

登眺難窮千疊山

(배 띄워 놀기에 산 하나쯤 물이 가랑 풍이)

취급조은 다보거 어렵고

明月清風來左右

白須紅頰坐中間

(달은 달 맑은 바람은 좌우에서 오는데)

흰수염과 붉은 뺨으로 풍간에 앉았거

超然自是神仙境

且問牧翁閑不閑

(초연하게 스스로 신선의 처경이라)

무방이 한자한자 물어 물어 보게

註

病 병을 앓음 驪 驪江 幾 幾번 往 往 還 還 泚 泚를 泚 君 君 顏 顏 韻 韻 운치운 流 流 遵 遵 好 好 半 半 篙 篙 상아대고 水 水 登 登 眺 眺 難 難 窮 窮 千 千 疊 疊 山 山 超 超 然 然 自 自 是 是 神 神 仙 仙 境 境 且 且 問 問 牧 牧 翁 翁 閑 閑 不 不 閑 閑 牧 牧 翁 翁 牧 牧 翁 翁 牧 牧 翁 翁

冠蓋星馳汗鼻端
一登於此盡開顏

(관개도 별처럼 달아 국중에 많이 맺혀서
(한번이 정자에 오르내려 얼굴을 피게)

涼生几案風涵樹
翠滴杯盤雨捲山

(시냇물이 차양에 나는 것은 바람이 나무에 스며들어서
푸른 것이 술상이 탁탁 떨어지는 것은 비가 산을 건넌음에)

長袖輕裾飄席上
繁絃急管列楹間

(긴 소매 가벼운 치마는 차양에 떨어졌네
많은 장고와 자음은 기둥 사이에 떨어졌네)

何人不感君恩重
鞅掌還兼物外閑

(누가 감은 것이 중함을 느끼지 않겠는가
바쁘고 바쁜 가운데 물외의 즐거움을 보았네)

註 滴 露 珠 捲 風 卷 袖 小 巾 个 極 符 印
裾 衫 子 鞅 禮 堂 飄 裳 錦 斗 掌 小 斗 長
馳 말 달 치 鼻 코 川 感 감 覺 兼 兼 兼 兼

倦飛孤高已知還
晚景清游得遲顏

(지름길은 외로운 세도이름을 줄라니
현이 달은 늦은의 정을 활짝 띠니)

天命莫疑即彭澤
世緣終淺似香山

(천명은 어찌 의심하랴 곧 팽택이요
세상의 연은 마침내 얕은 듯香山이요)

江湖興味三生外
鍾鼎功名一夢間

(강호의 흥미는 삼생의 외
종종 공명은 한꿈의 사이일세)

歌詠太平吾事業
從此自號李閑閑

(시평은 흥조는 나의 사업이
여기부터 스스로 호하기를 이한한 여가 하리라)

여기부터 스스로 호하기를 이한한 여가 하리라

註 倦 가를 권 孤 외로움 고 遲 지름길 遲 莫 어찌 可
疑 의심의 彭 팽(성(姓) 팽) 澤(적) 澤 淺 얕음 淺 終 終
鼎 鼎 詠 詠 號 호 號 業 業

遠山長江外
疎松翠石傍

먼 산은 긴 강 밖
희끗한 소나무 푸른 돌 곁이로되

招提開福地
普濟敞眞堂

모이는 부처 땅에 열렸고
크자는 선방이 열렸네

縣令頻腰笏
山僧獨面牆

현령은 자주 허리에 홀을 꽂고 바깥에 나가네
산승은 홀로 벽을 향하고 있네

何當尋野艇
清嘯倚蒼茫

어디엔 들 배를 물에서

맑은 휘파람 부는 그윽한 물에 띄운고

註 山 嶺이 수 疎 稀 少 招 早를 초 提 提를 사리 普 普를 旦 濟 濟를 敞 敞를 眞 眞를 堂 堂를 頻 頻를 杖 杖를 獨 獨를 面 面를 牆 牆를 倚 倚를 蒼 蒼를 茫 茫를

漢浦弄月

日落沙逾白 (해 떨어지고 모래 더욱 희고)
 雲移水更清 (구름이 옮겨 물이 더욱 맑아)
 高人弄明月 (높은 사람이 밝은 달을 노니 즐거우니)
 只欠紫鸞笙 (한 번 더한 생이 없구나)

註 漢 漢 漢 浦 浦 浦 弄 弄 弄 落 落 落
 沙 沙 沙 逾 逾 逾 移 移 移 更 更 更
 清 清 清 高 高 高 只 只 只 欠 欠 欠
 紫 紫 紫 鸞 鸞 鸞 笙 笙 笙

涑城望雨

天意應生物 (하늘 뜻은 응창 만물을 살리고)
 農功在及時 (농사 일은 때 마쳐 함에 있구나)
 碧潭龍卧久 (푸른 못에 용이 누운 지 오래 인데)
 一起竟何遲 (한번 일어삼이 아찌 더디구나)

註 婆 하 하 城 재 성 望 바라 망 雨 시 우
 意 뜻 의 應 應 음 忘 망 物 물 물
 農 농 농 功 공 공 在 재 재 及 및 및
 時 때 시 碧 무 름 潭 못 못 龍 용 용
 臥 누 누 久 오 오 竟 마 마 遲 지 지

虎谷耕田

平野牢籠盡
 荒畬片段餘
 (평야는 다 호부한 집에 감령하고
 荒畬는 다 호부한 집에 감령하고
 躬耕度朝夕
 還似孔明廬
 (고로 말하야 조사를 차기
 도리어 공명이 초가집 같으니

註 野 야 야 牢 牢 牢 籠 籠 籠 盡 盡 盡
 荒 荒 荒 畬 畬 畬 片 片 片 段 段 段 餘 餘 餘
 躬 躬 躬 耕 耕 耕 度 度 度 朝 朝 朝 夕 夕 夕
 還 還 還 似 似 似 孔 孔 孔 明 明 明 廬 廬 廬
 (고로 말하야 조사를 차기
 도리어 공명이 초가집 같으니

永明寺

昨過永明寺
暫登浮碧樓

(어제 영명사를 지나
잠시 부벽루 오르기)

城空月一片
石老雲千秋

(성은 텅만고 달만 한 조각)

(돌은 천주에 솟았는데)

麟馬去不返
天孫何處遊

(임은 가고 못오네)

(왕손은 어디로 노는가)

長嘯倚風磴
山青江自流

(긴 휘파람 불며 풍등에 기대)

(산은 푸르고 강물은 스스로 흐르는 고야)

註 昨 어제 속 暫 잠깐 잠 浮 뜰 무 碧 푸른 명
片 조각 한 麟 천주 返 돌아올 嘯 휘파람 소
倚 의지 風 바람 풍 磴 계단 遊 놀 유

樓閣臨江次
登攀遠世情

(누각이 강가에 다달았으니

희미잡하 오르며 세속 정이 멀어지게

波光朝日上

樹密暑風清

(물결이 빛나는 것은 아침 해가 오름이로

나무가 짙히 더운 바람이 맑구나

早歲湖山樂

浮雲組綬榮

(어찌부터 강산을 즐기며

벼슬의 영호로움을 뜬구름처럼 보았게

如何釣竿手

策馬向都京

(어찌하여 낚시대 잡든 손으로

말에 채찍질 하며 서울로 향할꼬

註 攀 科 登 攀 暑 時 夕 密 樹 影 日 竿 擡 竿 間
 組 組 五 綬 組 午 策 策 策 釣 釣 釣 京 京 京 京
 閣 閣 閣 向 向 向 都 都 都 京 京 京 京

麗山明水敏精靈
朴氏家中人嶺虎

(또는 산 맑은 물의 정기를 받고

박씨 집안에 머문 같은 인물이네

嶂嶸義氣怯衆臣

咆哮英風振九宇

(높은 의지와 거는 뜻 신하가 겁을 내고

우람한 영웅 풍채는 천지를 진동 시키네

安民肥責小人懲

齊世洪獻君子主

(백성을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 책임을 지고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갈에 공헌이 크네

平生所守一誠心

輔國深謀思肺腑

(형생에 자는 마는 자극한 상심이오

나라를 위하는 또책은 가슴을 찌르네

註 嶺 재 精 靈 嶂 峯 嶸 義 氣 怯 衆 臣 懲 懲 齊 世 洪 獻 君 子 主

精靈: 천지에 만물을 생양하는 근원(根源) 咆哮: 지는 감동의 위함.

權 近

黃驪山水自清奇
冠蓋相逢若有期

(황驪의 산수가 스스로 맑고 기이하여
관개가 서로 만나면 기이하게 있는 듯 하다)

別院絃歌筵秩秩
長江雲月夜遲遲

(별당의 거문고와 노래소리는 차례가 질서있고
긴장의 은월은 맑이 되되)

浮槎縹緲通霄漢
飛雪霏微落酒卮

(배를 띄우기 비듯하게 은하수의 통하는 듯
날리는 눈은 부슬 부슬 술잔에 떨어지네)

幸與諸公陪盛集
風流文采勝當時

(행운이여다분 모교 성한 모임에
풍류의 문채가 당시에 제일일세)

註 筵 和의 연 秩 和의 질 槎 和의 배 縹 和의 핏빛 緲 和의 희
縹 和의 희 緲 和의 빛 霄 和의 하늘 漢 和의 한나라
陪 和의 모함 盛 和의 성한 諸 和의 여러 集 和의 모함

我來愛此好江山
 終日乘舟又倚欄
 (내일이 좋은 산을 사랑하여
 종일도록 배를 타고 또 산간에 의지하니
 水底森羅閑佛刹
 林間隱約見瓜壇
 (물 밑에는 찬란하게 절이 열렸는데
 숲속에서 은은히 선관이 보이네
 指心頓教選傳慧
 載事雄文酷似韓
 (마음을 지니는 문구는 말의 배에게 전했고
 일을 기록하는 문구는 한나라의 후사에게
 珍重老禪勤授簡
 留題還愧後人看
 (진중함은 좋은 무지관히 종이를 주는 데
 글을 써서 남기면 뒷사람이 볼까 두려워서)

註 欄 也 是 也 森 佛 刹 隱 鏡 是
 頓 初 覺 是 慧 刹 簡 也 是 愧 也 是 可
 頓 教 (註): 善 師 의 수 행 을 法 師 에게 傳 授 是 也.
 善 師 是 佛 果 是 也.

薛文遇

萬景森羅指点端
 登臨不覺屢回顏

(일만 경치 손가락 끝에 가릴하는데)

루에 오러 차도 모르게 여러번 시선이 떠나 났어

長江西去赴滄海
 複嶺北來圍殘山

(긴장은 서쪽으로 향하여 들고)

첩첩준령은 북쪽에서 아산을 둘러싸고

透網魚跳寒雨裡
 忘機鷺立暝烟間

(드물게 낚시 고기 참미송이 하고)

祠 앞은 해와 함께 평면 틈에 모였어

一生脫却功名累
 青箬漁翁也自閑

(일생 공명의 누(累)를 벗고)

어사(漁翁) 쓴 어루가 자질로 한가하이

註

薛	薛(薛)의 이름	鷺	하얀 새	筇	죽	羅	모
複	겹	暝	저녁	赴	가	裡	속
透	통	脫	벗	却	벗	累	부
漁	어	翁	어사	閑	한가		

楊若齋 金九容

瀟洒青山野火侵
松杉銷盡更傷心

(가천 황산에 들불이 휩쓸어)

昔年躑躅花開處
蒼鬱翻成雜木林

(과거 해운대에 꽃이 피던 곳
은창하게 드디어 잡목림을 이루니)

은창하게 드디어 잡목림을 이루니

은창하게 드디어 잡목림을 이루니

註

瀟洒 瀟洒 灑洒 灑洒 灑洒 灑洒 灑洒 灑洒
 松杉 松杉 松杉 松杉 松杉 松杉 松杉 松杉
 銷盡 銷盡 銷盡 銷盡 銷盡 銷盡 銷盡 銷盡
 傷心 傷心 傷心 傷心 傷心 傷心 傷心 傷心
 躑躅 躑躅 躑躅 躑躅 躑躅 躑躅 躑躅 躑躅
 蒼鬱 蒼鬱 蒼鬱 蒼鬱 蒼鬱 蒼鬱 蒼鬱 蒼鬱
 翻成 翻成 翻成 翻成 翻成 翻成 翻成 翻成
 雜木 雜木 雜木 雜木 雜木 雜木 雜木 雜木
 林 林 林 林 林 林 林 林
 盡 盡 盡 盡 盡 盡 盡 盡
 瀟洒 灑洒 灑洒 灑洒 灑洒 灑洒 灑洒 灑洒
 傷心 傷心 傷心 傷心 傷心 傷心 傷心 傷心
 躑躅 躑躅 躑躅 躑躅 躑躅 躑躅 躑躅 躑躅
 蒼鬱 蒼鬱 蒼鬱 蒼鬱 蒼鬱 蒼鬱 蒼鬱 蒼鬱
 翻成 翻成 翻成 翻成 翻成 翻成 翻成 翻成
 雜木 雜木 雜木 雜木 雜木 雜木 雜木 雜木
 林 林 林 林 林 林 林 林
 盡 盡 盡 盡 盡 盡 盡 盡

瀟洒(正州) ① 灑洒 灑洒 灑洒 灑洒 灑洒 灑洒 灑洒
 ② 灑洒 灑洒 灑洒 灑洒 灑洒 灑洒 灑洒
 蒼鬱(正州) ① 古人之詩文是原案... ② 案件은 正州함.
 翻成(正州) ① 古人之詩文是原案... ② 案件은 正州함.
 雜木(正州) ① 古人之詩文是原案... ② 案件은 正州함.
 林(正州) ① 古人之詩文是原案... ② 案件은 正州함.
 盡(正州) ① 古人之詩文是原案... ② 案件은 正州함.

柞棹回蘆瀨
松舟繫石石工

(柞舟 상앗대로 결쳐 여울을 돌다

소나무 배는 돌 바위에 매였구나

清風吹老樹

明月滿長江

(맑은 바람은 늙은 나무에 불고

맑은 달은 긴 강에 차게

說法龍應聽

參禪虎自降

(선법하니 용도 응창 들을 것이요

참선하니 호랑이도 스스로 앞드러며

往來幽興熟

苔徑接蓬窓

(오가며 그윽한 흥취 익히

여기 긴 길의 바창에 접혔네

註

柞	齊	棹	回	蘆	瀨	松	舟	繫	石	石	工	龍	應	聽	參	禪	虎	自	降	幽	興	熟	苔	徑	接	蓬	窓
齊	舟	棹	돌	대	돌	배	배	대	돌	돌	돌	용	용	용	호	호	호	호	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夢魂搏繞鳳凰池

問舍求田碧水湄

(꿈은 아직도 봉황지를 사고 있는지

집을 구하고 밭을 구하여 푸른 물가를 찾았지

不用區區藏姓字

禽魚草木已會知

(구구히 성자를 감출것 없지

금어 초목이 이미 알고 있네

註 夢 夢 魂 魂 搏 搏 繞 繞 鳳 鳳 凰 凰 池 池 問 問 舍 舍 求 求 田 田 碧 碧 水 水 湄 湄 不 不 用 用 區 區 藏 藏 姓 姓 字 字 禽 禽 魚 魚 草 草 木 木 已 已 會 會 知 知

鳳凰(봉황) 경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봉황의 새 이름.

區區(구구) 사소함. 변변하지 못함. 卜一之心

區區(구구) 사소함. 변변하지 못함. 卜一之心

扁舟短棹款柴門
 雨夜還迷水上村

(은) (舟) (扁) 은 노로 (村) (短) (棹) 두 (短) (柴) (門)
 비는 밤에 드디어 풀워 마을이 아득하구나
 爲問金沙何處是
 一燈明暗隔林原
 (문) (어) (하) (가) (는) (곳) (이) (는)
 등불이 금을 겨한 바위에 잠박거리네

註 扁 舟 短 棹 款 柴 門 雨 夜 還 迷 水 上 村 爲 問 金 沙 何 處 是 一 燈 明 暗 隔 林 原

扁 舟 (은) (舟) (扁) 은 노로 (村) (短) (棹) 두 (短) (柴) (門)
 款 柴 門 (은) (舟) (扁) 은 노로 (村) (短) (棹) 두 (短) (柴) (門)
 雨 夜 還 迷 水 上 村 (은) (舟) (扁) 은 노로 (村) (短) (棹) 두 (短) (柴) (門)
 爲 問 金 沙 何 處 是 (은) (舟) (扁) 은 노로 (村) (短) (棹) 두 (短) (柴) (門)
 一 燈 明 暗 隔 林 原 (은) (舟) (扁) 은 노로 (村) (短) (棹) 두 (短) (柴) (門)
 林 原 (은) (舟) (扁) 은 노로 (村) (短) (棹) 두 (短) (柴) (門)

扁舟(은) (舟) (扁) 은 노로 (村) (短) (棹) 두 (短) (柴) (門) 葉片舟(은) (舟) (扁) 은 노로 (村) (短) (棹) 두 (短) (柴) (門)
 柴門(은) (舟) (扁) 은 노로 (村) (短) (棹) 두 (短) (柴) (門) 相送一一(은) (舟) (扁) 은 노로 (村) (短) (棹) 두 (短) (柴) (門)

① 院語. 閉門 [後漢書] 於是一絕賓客.

明暗(은) (舟) (扁) 은 노로 (村) (短) (棹) 두 (短) (柴) (門) 明暗(은) (舟) (扁) 은 노로 (村) (短) (棹) 두 (短) (柴) (門)

畫閣簾旌靚且端
更將風月洗愁顏

(화구각 지라기 풍구도 만경화기)

화구풍월을 거다수심된 양을 씻네

東涯佛屋危臨水

西崦民家靜負山

(동야지 불은 위 물에 임하산기)

사승은 처사는 고요이 산을 차았네

俯仰乾坤皆物外

登臨身世別人間

(부어양 천지보러 관판이 모두 사승 밖이요)

누에 올라 강을 거다보러 선세가 별인 초이네

他年我欲投簪笏

抖擻塵襟抵死關

(타년개구지 명승 바쳐다 버리)

타년웃기 할어 죽기까지 버리라

註 簾은 簾 旌 旌 靚 靚 且 且 端 端 畫 畫 閣 閣
俯 俯 仰 仰 乾 乾 坤 坤 皆 皆 物 物 外 外
笏 笏 抖 抖 擻 擻 塵 塵 襟 襟 抵 抵 死 死 關 關

灑江

江雨乍晴霽
江水忽已滿

(강미가 잠깐 개기
강물이 잠깐 가득 차)

風回縠紋長

日出魚鱗散

(바람이 들때 바닷물 무늬 길고
하루가 뜨고 고기 비늘이 흩어지네)

世累雖未漸

塵纓聊可濯

(세상에 따르듯 마투 씻지 못하니
치렁뚱은 갓끈을 애오라지 씻을만 하네)

白鷗本無事

群飛戲清暖

(흰 갈매기는 본디 일이 없어
떼지어 갈매기 맑고 따듯함을 희롱하네)

何當謝拘束

浩蕩為爾伴

(어찌 구속을 벗어날
호탕하게 너와 짝하리)

浩蕩為爾伴

(어찌 구속을 벗어날
호탕하게 너와 짝하리)

호탕하게 너와 짝하리

註

乍	잠근	차	霽	피갈지	忽	홀연	홀	穀	곡	곡
鱗	늘	린	湍	삿을	塵	티	진	累	루	루
縷	대근	음	聊	아니	澣	삿을	한	蕩	갈대	기
戲	아할	희	戲	본	暖	여	한	紋	무늬	문
拘	고	구	蕩	랑	雨	니	이	伴	짝	반

世累(解): 세상의 괴로움.

浩蕩(호탕) 浩浩蕩蕩(호호탕탕)의 준말

浩浩蕩蕩(호호탕탕)의 副어 한이 있음.

[范仲淹] — 橫無際涯.

泛泛小孤舟
 長年橫渡頭
 (호호) 汎汎 小孤 舟
 迎南又送北
 濟人無少休
 (호호호호) 迎南 又送 北
 波濤起山岳
 烟雨迷汀洲
 (호호호호) 波濤 起山 岳
 千聲萬語
 不與此
 水長流

平林望不窮
一趾連江澗

(평림은 마다 보아도 마다함이 없어)

승자는 강가에 잇달아 있게

鬱密百年藤

蒙茸千歲樹

(우밀한 건 백년 된 등이로)

우거진 것은 권연된 나무일세

巖巖作家鄉

狐兔爲城府

(독재미와 다람쥐 집을 짓고)

여우와 토끼는 성을 쌓았세

氣色莽蒼々

川澤儘詭々

(기색은 말의 아득한게)

권력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此中可深藏

恐有古巢父

(여기에 권이 숨을 만하니)

혹시 옛날의 소부 있을지

註 趾 躡 澗 藤 巖 詭 巢 父
巖 密 鬱 蒙 茸 千 歲 樹 此 中 可 深 藏 恐 有 古 巢 父

磻寺

隔岸有僧舍
金碧輝林端

(강변의 저 건너 절이 있는데
관청이 숲 끝에 바치는 구가

諸天列下界
世尊安中間

(사천은 하계에 펼쳐 있는데
세존은 중간에 안치 되셨네)

俗客少來往
高僧長自閑

(속객이 바깥이 적어
고승은 늘 스스로 한처하게)

晨昏祝香火
聖壽齊南山

(아침 저녁 향 드우고 바는 것은
성수 감춘과 같은 일세)

門前臂浮屠
歲遠莓苔斑

(문앞에 벽돌 부도는
세월이 오래매 이끼 겨 얼룩졌네)

註 隔 岸 有 僧 舍 金 碧 輝 林 端
 輝 光 射 林 端 諸 天 列 下 界
 昏 明 照 佛 身 聖 壽 齊 南 山
 浮 屠 浮屠(浮屠) 斑 點 斑 點

馬巖

穹窿馬巖石
盤礴亦奇怪

(마암석이 활차럼 석려
넓고 호한 거피하구가

江流斷其根
萬古堅不壞

(강물흐름은 그 뿌리를 끊는 데도
만고에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네)

怒濤方蕩瀟
分此勢漸殺

(노한 물결은 마야흐로 울렁거리다가
여기서 가뉘어 수위는 점점 사해)

孤城賴以完
論功難償債

(외로운 성이 힘입어서 완전하게
공을 논할진대 빚을 갚기 어렵네)

人看一頑石
吾獨取其介

(사람은 하나의 무지한 돌로 보지만
나는 홀로 그 견고하여 굽히지 않음을 취하네)

註 穹 활차럼 穹窿 盤礴 활차럼 盤礴 斷 끊는 斷 濤 물결을 濤 瀟 울렁거리는 瀟 殺 끊는 殺 介 깎는 介

英 陵

園陵正密通
五雲園虛殿

(능이 정밀히 서로 접했는데)

오(五) 구름은 빈 잔극을 들렸네

禁籟拘山長
松柏連江遍

(금어는 산을 싸서 긴대)

송(松)은 강을 연하여 들렸네

百靈擁巖谷
祥風生傘扇

(백(百) 신령이 암곡을 옹호하고)

상(祥)풍은 마름이 일산과 부채에서 나오네

伺官謹洒掃
守臣潔齊薦

(시(伺)관은 마름을 근심하여 청소하고)

고(伺)을 원한 게곳이 서서하고 서서 드리네

二聖降陰騭
豐樂通州縣

(두(二) 성인은 차분히 도읍을 개척하여)

풍(豐)의 즐거움이 고(伺)에게 차서 청소되

岳陽可包羞
 黃鶴堪懷恥
 (아름다운 부끄러움을 가질 만하고
 황학루도 부끄러워 할 만하게)
 珠璣爛壁間
 登觀清塵滓
 (높은 곳들이 벽 사이에 찬란한데
 올라오니 벽의 먼지들이 깨끗하게)

註 清 물이름 土 酒 술 把 누를 音 汙 물이름 污 土 油 기름 時 時 累 累 潤 물이름 污 羞 羞 鶴 鶴 堪 堪 恥 恥
 山 山 斗 斗 國 國 包 包 羞 羞
 珠 珠 璣 璣 爛 爛 壁 壁 間 間
 登 登 觀 觀 清 清 塵 塵 滓 滓

高達寺

二十年前似夢間
少年交契半黃泉

(20년 전이 꿈 같구나
젊었을 때의 친구들은 한이나 황천국이 되었네)

今來高達古精舍
為有圓通大福田

(과고갈 옛절에 묻은
원통 큰 부처님이 있는 때문이네
四面山屏圍紺宇
一條碑石倚青天)

四面山屏圍紺宇
一條碑石倚青天

(사면의 산 병풍은 절을 둘러싼 듯
한 개 비석은 푸른 하늘에 기대었네)

笑談竟夕忘歸路
還似當時在妙蓮

(웃음과 이야기 하루 자리에 돌아갈 길을 잊었네
또로 형이 묘연에 있던 것 같으니)

笑談竟夕忘歸路
還似當時在妙蓮

(웃음과 이야기 하루 자리에 돌아갈 길을 잊었네
또로 형이 묘연에 있던 것 같으니)

註 契 契(契) 契(契) 契(契) 紺 紺(紺) 屏 屏(屏) 屏(屏) 屏(屏)
碑 碑(碑) 妙 妙(妙) 妙(妙) 妙(妙) 談 談(談) 談(談) 談(談) 園 園(園) 園(園) 園(園)
紺色(紺色): 검은 빛을 띠는 푸른 색.

神勒寺

崔 脩

覺寺鐘聲半夜鳴
廣陵歸客夢初驚

(覺寺鐘聲半夜鳴 廣陵歸客夢初驚)

苦教張繼曾過此

未必寒山獨擅名

(苦教張繼曾過此 未必寒山獨擅名)

吾知此句吟來好

吾知此句吟來好

註 勒勒覺覺鳴鳴廣廣驚驚
鳴鳴繼繼曾曾擅擅

別黃驪歸京

圃隱 鄭夢周

煙雨空濛滿一江
樓中宿客夜開窓

(가을비와 두꺼비는 온 창을 가로막아 왔는데
누가 창을 닫아 놓았는지 밤에 창을 여누가

明朝上馬衝泥去
回首蒼波白鳥雙

(아침에 아침에 말에 올라 전후로 갈라져
돌아보면 창포와 흰 갈매기 쌍쌍이리

註 圃 圃 또는 隱 隱 은 濛 濛 濛 濛 衝 衝 衝 衝
泥 泥 泥 泥 蒼 蒼 蒼 蒼 雙 雙 雙 雙

淵村

使村昔未來 田里不土着
 (사촌이 아직 오지 않았을 적엔
 농민들이 토착하지 못했네)

使君既下車 豐穰烟火文
 (사촌이 이미 수레에 가리매
 풍년들어 함짓는 연기가 오네)

左右殮又粥 村謳雜農笛
 (좌우엔 함이오 오른편엔 죽
 시골 노래는 농악과 섞여서 들려 오네)

去月減官租 今月蠲軍役
 (지난 달에는 관세 세금을 감했네
 이 달엔 병역을 면했네)

擊壤歌衢樽 愷悌民所樂
 (격양가를 부르며 구주를 마시
 인자한 백성이 즐기는 마을세)

註 淵 吳姓(淵)淵, 田 村 마을 촌 昔 옛 昔
 着 着을 착 既 已 거 豐 풍년 풍 穰 풍년 양
 殮 屍를 殮 粥 죽 죽 謳 노래 구
 減 減을 감 減 租 租를 조 蠲 免 免을 면 蠲 蠲을 면
 悌 悌를 悌 擊 擊을 격 樽 술잔 樽 樽을 잔

灤州風景詩 次韻 鄭子厚

北原西畔漢南端
 我昔登樓一展顏
 脚底蒼茫江繞郭
 眼前平遠野連山
 白雲仙想三清外
 明月詩情八詠間
 二十年來塵土下
 至今忠夢不會關

(2011년 12월 25일)
 灤州風景詩 次韻 鄭子厚

註 畔 北原(原) 脚 北原 繞 灤州 郭 外(姓) 郭
 北原(原) : 北原(原)
 三清(道) : 道教의 天上理想境

馬巖

巖以馬爲名
奇奇而怪怪

(바위를 말로써 이름 지었대)

기기하고 괴괴하고

騰驤自巖巖

堅固亦不壞

(뛰어든 듯 스스로 할 처고)

견고하며 또 무너지지 아니하니

海鬼已擄魄

驚濤比崩殺

(바다 괴물은 이미 혼이 두른 것이니)

놀란 파도는 바위 무너지누나

我欲鞭作橋

可忘砥柱債

(바위 꼭대기를 밟아 마리를 만들어서 하)

자꾸의 공을 잊으랴

終當鍊補天

高名擅江介

(종공 마름이 하늘을 가름이니)

높은 이름이 강가를 독하게 했네

註	奇 <small>기</small>	怪 <small>괴</small>	騰 <small>등</small>	驤 <small>양</small>
	巖 <small>암</small>	眞 <small>진</small>	堅 <small>견</small>	壤 <small>양</small>
	愕 <small>억</small>	魄 <small>억</small>	驚 <small>경</small>	濤 <small>포</small>
	崩 <small>붕</small>	殺 <small>살</small>	鞭 <small>편</small>	橋 <small>교</small>
	忘 <small>망</small>	砥 <small>지</small>	柱 <small>주</small>	債 <small>채</small>
	鍊 <small>련</small>	補 <small>보</small>	擅 <small>찬</small>	介 <small>개</small>

英 陵

橋山象設嚴
衣冠藏寢殿

(교산에 상설이 엄중히)

의상은 관복에 차려져 있음)

岩峩金葉閑

葱蘢佳氣遍

(높고 높이는 기운은 도에 차우하고)

아름다운이 두루 펼쳐짐)

八駿嘶向前

儀衛森傘扇

(팔주마는 울며서 앞으로 향하는 듯)

의장은 산산이 울림 있음)

聖主重園陵
 祠官肅陳薦
 (성주 중은 중의 아사는 다
 사관은 엄중이 사사 삼리니
 鼎湖雲漠漠
 蒼首黃驪縣
 (성호에 구름이 멀고 아득한데
 황수현은 머리 들어 바라보네)

註 檣 木也 五 象 五也 相 也 嚴 峻 也 冠 次 也
 藏 藏 也 肅 肅 也 寢 寢 也 殿 殿 也 蒼 蒼 也 遍 遍 也
 堯 堯 也 五 葱 葱 也 龍 龍 也 儀 儀 也 衛 衛 也
 駸 駸 也 五 傘 傘 也 扇 扇 也 祠 祠 也
 森 森 也 五 薦 薦 也 鼎 鼎 也 湖 湖 也
 肅 肅 也 五 矯 矯 也 驪 驪 也 縣 縣 也
 漠 漠 也 五 蒼 蒼 也 首 首 也
 葱 龍 (俗字) 以 木 也 五 半 龍 也 五 也

驪州風景詩 次韻

辛 碩 祖

世事紛紜日幾端
 登臨此夕偶開顏
 (세사 분연 일 기 단 / 등림 처 석 구 개 연)
 江邊老樹不知歲
 天末遙岑何處山
 (강변 노수 부지 세 / 천말 요岑 어디 산)
 仙境肯尋三島外
 風流却勝五湖間
 (선경肯尋 삼도 외 / 풍류却勝 오호 간)
 忽忽杖鉞皇華使
 胡奈奔馳未暫閑
 (忽忽 장검 황화 사 / 허나 분馳 미 잠 안)
 疑

註 紛紜(분연)은 杖(장) 지팡이 장 偶(구) 우 岑(岑) 巒(산) 忽(忽) 皇(황) 華(화) 使(사) 使(사) 使(사) 使(사)
 忽(忽) 皇(황) 華(화) 使(사) 使(사) 使(사) 使(사)
 皇華使(황화사) 使(사) 使(사) 使(사)

清心樓

樓高 清我心 千丈은 높고 새 마음은 맑은데
 其下 有流水 그 아래엔 흐르는 물이 있어

綠淨 不可唾 푸르고 맑아서 침도 뱉을 수 없으니
 可以 滌心累 마음의 누를 씻을 만 하니

山川 鬱相繆 산천은 울창하게 서로 엮이어
 千里 又 萬里 천리 또 만리 일세

槌碎 黃鶴樓 망치로 황학루를 두드려 무너뜨리는
 此語 我曾恥 이 말을 내 일찍 부끄러워 하였네

豪哉 老元龍 호기 있는 늙은 원룡은
 舉舉 蛻塵滓 드디어 차를 벗어났네

註 綠 푸르고 淨 맑고 唾 침 滌 씻음 正
 累 누 繆 엮임 槌 치 碎 부서 碎 碎
 恥 부끄러움 豪 호 舉 들 蛻 벗어남 塵 塵
 塵 塵 滓 滓

次韻

金 稠

澄江來注自天端
樓上登臨可照顏

(歌은 강이 하늘 끝에서 내려와서
樓上에 올라서 하늘을 보며 얼굴이
澄江에서 내려와서 하늘 끝에서 내려와서
樓上에 올라서 하늘을 보며 얼굴이

痛飲快宜邀太白
能詩曾是得韓山

痛飲快宜邀太白
能詩曾是得韓山

(痛飲快宜邀太白
能詩曾是得韓山)

參差松翠孤帆外
嗚咽灘聲兩岸間

參差松翠孤帆外
嗚咽灘聲兩岸間

(參差松翠孤帆外
嗚咽灘聲兩岸間)

徒倚朱欄還一笑
孰為忙也孰為閑

徒倚朱欄還一笑
孰為忙也孰為閑

(徒倚朱欄還一笑
孰為忙也孰為閑)

어찌하여 바쁘고 어찌하여 느긋하냐.

註 澄 강을 징 痛 痛은 痛을 笑 笑은 笑을 翠 푸른 翠 푸른 邀 邀은 邀을 帆 돛 帆 돛 欄 欄은 欄을 孰 孰은 孰을 嗚 嗚은 嗚을 咽 咽은 咽을 差 差은 差을 參 參은 參을 差 差은 參을

高麗 廉興邦

詩酒歡娛近百年
古人遺迹在林泉

(시와 술로 즐기며 놀음이 백년 가까이
옛 사람 남긴 자취 일천여 곳이)

紅塵十載 銀臺寵
爭似伊菴 一醉眠

(홍진 10년째 은대 영광이며
여름에 한번 이암에서 자는 것만 여겨)

여름에 한번 이암에서 자는 것만 여겨

註

麗	高麗	廉	정권	興	흥	邦	나라
歡	즐거움	娛	놀음	近	가까움	古	옛
遺	남김	迹	자취	泉	천	紅	붉은
塵	먼지	載	싣다	銀	은	臺	집
寵	광택	爭	다툼	菴	암	醉	술취
眠	잠						

金沙居士

灑江渺女控龍門

隔岸漁燈認遠村

(中은 灑와 여 두하여 용문산을 들었는대
먼저 淸은 淸에 먼 마을 있음을 알렸네)

田父夜歸無雜語

但祈禾稼滿郊原

(농부들이 밤에 돌아오기)

註 灑야투호요 控控공 隔畔격 岸안 淸안
燈등등 認알인 雜섞인 淸淸 但반만 淸淸
祈禱치 稼은 禾 郊들고 原안의 원

麥壠高低水滿地

荒村寂々傍江湄

(모의 언덕은 높낮이 물은 못에 가득한대
쓸쓸한 마을이 북쪽 남쪽에 강가에 있어)

紅塵南北紛紜事

說與沙頭白鳥知

(속귀에서 남으로 북으로 다니는 사그마은 일을
모양은 이 새에게 말하여 알리노라)

註 麥모의 밭 壠안쪽 둑 荒황 황 淸淸 淸淸 淸淸
傍畔 방 湄물가 紅홍 홍 塵은 塵은 淸淸
紛紜~은 說話는 與淸은 淸은 淸은 淸은 淸은 淸은

元積八景

田元植

元積山前一大平
春來四起叱牛聲

(원적산 앞 들판에서 들을 때)

耕耨이 되어야 저 소는 소리 들리고

貧歌數調張人意

競利渦中是太平

(농민의 여러 처우가 사람의 뜻을 강인하게 하여

이익만 추구하는 와중에 이것이 태평이리라)

註 積 쌓을적 叱 꾸짖을질 數 실을수 調 고루조
張 張을 意 뜻 의 競 다투는경 渦 소용돌이 와

堂宇

李善達

禪房僧已寂
 獨坐夜將分
 (선방에 스승들 고요해 지니
 홀로 앉아 한잔 차니
 知有漁舟過
 江心人語聞
 (그때 자음을 알게 되니
 강천에 사람소리 들리네)

註 禪 禪 房 房 僧 僧 寂 寂
 獨 獨 將 將 舟 舟 語 語
 禪房(선방) : 파는 방.

灑江清遊

高麗李玖

會上灑江江上樓
 直將衰鬢照清流

(회상 여강 강위애 누에 을라)

비로 여한 카팔을 처고 맑은 흐름에 마켓이

如今塵土成閑夢

露滿漁蓑月滿舟

(오늘의 진토는 차간 꿈 되었어)

이슬은 고갯집이 도롱이에 가득하고 달은 배에 가득해

註 灑 洗 滌 也 玖 張 子 直 是 也 衰 頹 也
 照 明 也 鬢 髮 也 養 道 也 塵 埃 也
 滿 盈 也 閑 靜 也 夢 夢 也 露 露 也

八大藪

目多古名數
 盤鬱江之濟
 (目多古名數) (盤鬱江之濟) (金어라)
 音我揚航過
 繫纜古槐樹
 (音我揚航過) (繫纜古槐樹) (金어라)
 上有神仙宮
 下有蛟龍府
 (上有神仙宮) (下有蛟龍府) (金어라)
 緬懷雲夢藪
 伯仲可誇詡
 (緬懷雲夢藪) (伯仲可誇詡) (金어라)
 我非楚醒者
 獨不見漁父
 (我非楚醒者) (獨不見漁父) (金어라)
 홀로 어부를 보지 못했네

驪州風景詩 次韻

都元興

十載還憑此檻端
美人應笑變朱顏

(10년만에 돌아와 이 장소 끝에 처하여
미인이 응당 젊은 얼굴 변한 것을 웃으리라)

兩竿落日明孤塔
一帶長江抱衆山

(서늘한 늦은 날은 외로운 탑에 밝은데
한 줄기 긴 강은 못산을 안았네)

野鶻還盤紅樹外
征鴻高沒碧虛間

(이새는 땅의 품은 나무 밖을 도는데
새가 새는 푸른 하늘 품으로 사라지네)

飽聞前輩遊湖事
今見灘頭盡舸閑

(선배들 옛날이 하던 일을 이제 들었네
여기는 여울 머리에 놀이배 한 척도 보지 못)

註 憑 倚 檻 欄 飽 滿 變 更 竿 篙 鶻 鷂 舸 舟 虛 虛 塔 臺 紅 髡 髻 沒 沈 灘 堤 頭

黃驪縣

鄭樞

夜入黃驪縣
 舟人欲自時
(말의 향이향의) 삼
향이향의) 본이향의) 향이향의)
 渚行風作暴
 樓宿月如期
(은근) 리) 향의) 향이향의)
향의) 향의) 향의) 향의)
 夫豁長江動
 沙明雜樹奇
(향의) 향의) 향의) 향의)
향의) 향의) 향의) 향의)
 三更發清甯
 便覺舞馮夷
(향의) 향의) 향의) 향의)
향의) 향의) 향의) 향의)

註 渚 野지 豁 豁을 豁을 夜 夜는 夜는 暴 暴는 暴는
 夷 夷는 夷는 樞 樞는 樞는 甯 甯는 甯는 馮 馮는 馮는
 舞 舞는 舞는 雜 雜는 雜는

次韻

申用漑

江烟冉々惹毫端
江水澄々照瘦顏

(江烟) 江煙 江煙 江煙 江煙 江煙 江煙

江煙은 江煙 江煙 江煙 江煙 江煙 江煙

細瀟瀟邊唯白鳥
翠林橫外亦青山

(細瀟) 細瀟 細瀟 細瀟 細瀟 細瀟 細瀟

細瀟은 細瀟 細瀟 細瀟 細瀟 細瀟 細瀟

八窓勝景雙眸內
一雨寒聲萬露間

(八窓) 八窓 八窓 八窓 八窓 八窓 八窓

八窓은 八窓 八窓 八窓 八窓 八窓 八窓

自笑名途長楚辭
任他漁叟管清閑

(自笑) 自笑 自笑 自笑 自笑 自笑 自笑

自笑은 自笑 自笑 自笑 自笑 自笑 自笑

註 冉 江煙 惹 毫端 澄 照 邊 唯 白鳥
瘦 細瀟 翠林 橫外 亦 青山
雙 眸 內 一 雨 寒 聲 萬 露 間
自 笑 名 途 長 楚 辭 任 他 漁 叟 管 清 閑

灑州風景詩

日本僧 梵 齡

長江翻練接簷溢
 倦客堪醫塵土顏
 清磬月高知遠寺
 平林雲盡辨遙山
 朱甍碧瓦照波底
 沙鳥風帆遊世間
 三白三韓傳國命
 却羞孤負一心閑

註 接練 翻 簷 溢 倦 客 堪 醫 塵 土 顏
 清 磬 月 高 知 遠 寺 平 林 雲 盡 辨 遙 山
 朱 甍 碧 瓦 照 波 底 沙 鳥 風 帆 遊 世 間
 三 白 三 韓 傳 國 命 却 羞 孤 負 一 心 閑

원문누락

여

백

사단법인 여주문화원

오늘도

개성에 바탕을 둔

창의력을 존중하며

이땅에

문화의 낙토를

우리손으로 일구고저

언제나

머리조아리며

군민과 더불어 굳게 손잡고

미래를 향한

선진조국 창조를 위해

즐기차게

보람찬 행진을 이어

나가고 「——」

있습니다.

— 임원일동 —

여주문화원의 임원

원 장 안 금 식

이사장 박 광 식

부원장 정 용 우

” 황 용 구

이 사 박 흥 수

” 이 용 환

” 김 창 영

” 박 근 출

” 박 명 수

” 권 재 성

” 안 창 복

” 차 용 남

” 김 영 준

감 사 김 종 성

” 박 기 석

驪江文化 4 (여주 한시편)

1988년 12월 20일 발행

역 자 김 성 환

발행인 안 금 식

편집인 김 정 립

발행처 사단법인여주문화원

☎ 83-3450-83-3200

인 쇄 을지문화사 ☎ 279-4782~3

서울·중구을지로 3가262-1

※ 이책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진흥기금 일부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